

회 의 록

(2016학년도 제1회 등록금심의위원회)

□ 일 시 : 2017. 1. 16.(월) 15:00-17:00

□ 장 소 : 기획조정과 소회의실

□ 참석현황

○ 참석자

- 위원(8명): 위원장 강혜정, 평의원회 대표 ○○○, 재정분야교수 ○○○, 학생위원 ○○○, 학생위원 ○○○, 학생위원 ○○○, 학생위원 ○○○, 학부모위원 ○○○
- 간사(2명): 재정관리팀장 ○○○, 재무팀장 ○○○
- 배석(1명): 기획조정과 ○○○

○ 불참자(2명): 교직원위원 ○○○, 외부전문가 ○○○

□ 안 건 : 2017학년도 전남대학교 학부 등록금 책정(안) 심의

□ 심의사항

1. 개회선언

⇒ 총 위원 10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기에 개회를 선언함.

2. 전차회의록 : 원안통과

3. 2017학년도 등록금 책정(안) 심의

○ 위원장: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소개함.

○ 위원장:

- 회의자료에 의거 ‘2017학년도 국가장학금 사업개요’, ‘2017학년도 대학회계 예산편성 세입·세출 수지’에 대하여 설명하고,
- 대학원(일반대학원, 특수대학원, 문화전문대학원, 치의학전문대학원) 등록금 수업료Ⅱ기준 1.5%인상(안) 및 학부 동결(안)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를 요청함.

[대학원 등록금 책정(안): 수업료Ⅱ기준 1.5%인상(일반대학원, 특수대학원, 문화전문대학원, 치의학전문대학원)]

- **교직원위원:** 경영전문대학원의 등록금 수준과 원생모집의 상관관계는 명확하지 않으나, 경영전문대학원의 등록금 수준이 타 전문대학원 등록금 수준에 비해 높은 상황으로 원생모집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등록금 인하를 검토·요청 드림.
- **위원장:** 경영전문대학원으로부터 인하 요청이 있었으나, 대학 재정여건 및 타 전문대학원 등록금 인상 상황을 고려할 때 인하는 어려운 상황임.
- **교직원위원:** 등록금 인하를 통하여 정원을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, 외부 컨설팅을 통해 등록금이 높다는 의견이 있어 적정 등록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.
- **위원장:** 현재 상황으로 등록금 인하를 검토·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추후 경영전문대학원의 자구노력(안), 등록금 인하 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적정 등록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.
- **교직원위원:** 등록금 책정의 기본 방향은 학생들의 역량이나 대학의 대외경쟁력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. 의과대학의 경우 타 대학에 비해 등록금 수준이 현저히 낮고 투입되는 비용은 많은만큼 차등 인상·인하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됨.
- **위원장:** 계열 간 차등 인상·인하는 2016학년도 등록금 책정 시에도 검토하였으나, 인상계열과 인하계열의 재학생 수 차이로 인한 회비 수입 감소, 계열 학생 간 갈등 유발 등의 사유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음을 설명함. 아울러, 추후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때 차등 인상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.
- **교직원위원:** 대학원생의 경우 납부한 등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종 장학금(RA, TA) 등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상황으로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됨. 아울러 대학원의 등록금 책정 시 대학원생의 의견수렴을 위해 대학원생 대표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됨.
- **간사:** 대학원생의 대표기구 부재로 위원 추천이 어려운 상황으로 추후 총학생회와의 협의를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음.
- **위원장:** 대학원 등록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세입 증가분의 20%를 해당 대학원(일반대학원 제외) 재원으로 배분할 계획임.
- **학생위원:** 2016학년도 일반대학원 등록금 인상재원의 사용용도에 대해 설명을 요청함.
- **간사:** 2016학년도 일반대학원 등록금 인상에 따른 세입 증가분 전액(약 2억원)을

대학원생 장학금으로 사용함.

-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대학원 수업료Ⅱ기준 1.5% 인상(안) (일반대학원, 특수대학원, 문화전문대학원, 치의학전문대학원)에 대해 원안대로 확정하자는 의견을 묻고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함.

[학부 등록금 책정(안): 동결]

- 학생위원: 입학금과 졸업유보비 징수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.
- 간사: 입학금 징수 문제는 국립대의 문제가 아니라 사립대의 과다징수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현재 고등교육법 개정(안)이 발의되는 등 국회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므로 법률 개정 상황을 보면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.
- 위원장: 사립대와 달리 국립대의 경우 입학금, 수업료Ⅰ 세입액만큼 국가지원금(공무원 인건비)에서 감액하여 지원받는 상황으로 자체 세입재원으로 보기 어려움.
- 학생위원: 산학협력단회계, 발전기금회계 예산·결산 자료를 요청했는데 회신이 없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청함.
- 간사: 회계가 종료되지 않아 결산이 완료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학생과와 협의해서 관련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음.
- 교직원위원: 입학금은 국가지원금과 연관된 부분으로 대학 내부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, 졸업유보비는 도입 취지가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학사관리적인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로 학사제도와 연관해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.
- 간사: 졸업유보비는 재학생 신분으로 학교시설물을 이용하고 각종 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최소한의 사용료 성격으로 주무부서인 교무처(학사과)와 연계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됨.
- 위원장: 졸업유보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면 추후 학생위원들이 학생과에 요청하여 주관부서와 논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, 필요시 예산관련 부서도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음.
- 학생위원: 졸업유보비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.
- 간사: 졸업유보비 산정기준은 도입시기의 자료를 검토해봐야 할 것이며, 졸업유보비를 징수하지 않을 경우 졸업유보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사용에

따른 비용, 각종 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비용이 재학생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음. 아울러 우리 대학의 졸업유보비 수준은 타 대학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.

- 학생위원: 졸업유보비의 사용용도에 대해 설명을 요청함.
- 교직원위원: 졸업유보비 재원의 사용용도를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나, 학사관리 성격의 비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됨.
- 학생위원: 입학금 재원은 징수 목적에 맞게 사용용도를 특정하여 입학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함.
- 간사: 입학금은 기존부터 국고로 세입처리 되었던 재원이며, 현재는 입학금, 수업료 I 세입액만큼 국가지원금(공무원 인건비)에서 감액 지원받고 있는 상황으로 기획재정부, 교육부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부분임.

●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학부 등록금 동결(안)에 대해 원안대로 확정하자는 의견을 묻고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함.

● 2016학년도 전남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의결함.

- 학부 등록금(입학금, 수업료) 동결
- 대학원 등록금 수업료 II 기준 1.5%인상(일반대학원, 특수대학원, 문화전문대학원, 치의학전문대학원)
 - 대학원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세입 증가분의 20%는 해당 대학원(특수대학원, 전문대학원)으로 배정함(일반대학원 제외).

2017. 1. 16.

작성자: 기획조정과 한 영 석

확인자: 위원장(기획조정처) 강 혜 정